

제2공항 건설 '반대' 55.9%·'찬성' 41.4%

비상도민회의 도민 1015명 대상 제2공항 찬·반조사 80% "공항시설 확충 필요"... 58% "현 공항 확장" 서귀포시와 성산읍은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우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도민들을 상대로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찬반을 묻은 결과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도민회의)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18일 진행된 제주 성산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공항 건설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높았다.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성산 제2공항 건설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5.9%로 '찬성한다'는 의견 41.4%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나머지 2.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반대 59.5%, 찬성 37.1%로 나타나 반대 여론이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찬성 52.2%, 반대 45.7%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에서는 찬성 56.0%, 반대 44.0%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제주의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제주 공항 시설 확충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80.3%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공항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선 현 제주공항 확장 의견이 우세했다. '제주의 공항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중 어느 대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현 제주공항 확장'이 58.2%, '제2공항 건설'이 34.6%로 현 제주공항 확장이 오차

범위 밖에서 높았다. 또 제2공항 갈등 해결 대책으로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 견수법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76.0%, '반대' 12.4%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 11.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도민회의의 의뢰를 받은 리서치플러스조사연구소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일대일 전화면접(유무선 조사병행, 유선 312명, 무선 703명)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이다. 응답률은 24.73%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초등입학 대상자 2명 소재 파악 안돼

6385명 입학등록 마쳐

제주지역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6967명인데, 이 중 2명(제주시 1명·서귀포시 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하

고, 거주지 소재 읍면주민센터와 경찰, 학교 등과 함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이 지난 20일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학교와 읍면주민센터 등과 소재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0학년도 도내 초등학교에 입학 등록을 마친 인원은 6385명이다. 나머지 580명은 취학 면제·유예를 신청했다. 김지은기자

행인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 실형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오후 9시쯤 화물차를 운전하며 서귀포항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2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해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대기업 농산물 수입 제주 감귤에 악영향"

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현진성)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기업의 농산물 수입은 감귤·만감류에 악영향 우려가 있다"며 "상호 협력 모델이란 미명하에 국내 농가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현대캐피탈·에스케이·에프에스 등의 행태를 규탄하며, 감귤·만감류 농산물 1월 국내 수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에스케이가 지난 15일 캄보디아에서 총면적 5만㎡ 부지에 6000㎡ 규모의 농산물유통센터를 준공, 캄보디아산 망고를 비롯한 열대과일을 1월 중 한국 시장으로 수입해 유통할 예정"이라며 "매년 수출 물량 확대는 물론 취급품목도 옹과, 망고스틴 등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대기업이 열대과일 생산·수입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과수 농가들의 목을 죄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번 망고 수입이 1월부터 예정돼 있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감귤 농가에게는 감귤 소비 부진을 야기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함은 물론 향후 만감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신권 교환합니다"... 설 앞뒤 복직하는 한국은행 설 명절을 나흘 앞둔 21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는 세뱃돈으로 쓰기 위해 신권을 교환하려는 도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상민기자

119,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5년간 사고 20건... 신구간과 겨울철에 집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제주지역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25일~2월 1일)을 앞둔 가스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이사철에는 가스용기의 탈·부착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한 가스 누출,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는 20건의 가스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해 34명이 부상하고 3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중 50%는 겨울철과 신구간에 발생한 사고다. 도소방본부는 가스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신구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LPG 판매시설업체 등 384곳에 화재예방 협조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도내 아파트 등 LPG 집단공급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신구간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지상과 방송과 전광판 등을 활용한 가스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펼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이사 과정에서 가스용 조리 기구를 철거할 경우 가스판매점에 연락해 실시하고, 호스막을 조치와 중간 밸브 가스 누설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애월읍 가구판매점 화재

20일 오후 7시53분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가구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소실 및 가구류 일부가 그을음 피해를 입으면서 73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사진

소방당국은 건물 외부에서 자주 흡연 행위가 있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토대로 담배꽂초 부주의에 의



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부당하고 복직 나서라"

민노총 제주도에 촉구

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 복직 문제에 지금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고자들은 작년 추석에 이어 올해도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또다시 해고 철회와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며 "제주도는 해고의 고통과 싸우는 노동자들의 현실에 눈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이어 "도립예술단과 농업기술원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권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문예진흥원과 농업기술원의 노조단압 횡포 속에서 우리는 거리로 내몰렸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도청 산하조직인 문예진흥원과 농업기술원에서 발생한 해고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다가오는 봄에는 해고 노동자들에게도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고 문제 해결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탱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리봉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와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9년생,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례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리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야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